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특집 II

민주화운동단체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III

가톨릭 노동운동의 재평가를 통한 현 노동운동의 대안 모색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을 사례로 **김상숙**

한국사회 구조변동과 사회운동의 내적 구성 변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 프레임 분쟁과 조직분화를 중심으로 **이창언**

기독교청년회(YMCA)의 시민참여적 시민운동의 흐름
—시민감시와 캠페인 활동을 중심으로 **조철민**

가톨릭 노동운동의 재평가를 통한 현 노동운동의 대안 모색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을 사례로

김상숙
대구사회연구소

〈논문요약〉

이 글에서는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을 사례로 최근 한국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톨릭 노동운동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다.

한국의 가톨릭 노동운동은 1970년대 왕성했던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이하 지오세)의 운동과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가톨릭노동사목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사목은 지오세 출신의 평신도들이나 수도회 소속 수도자, 성직자들이 공단 주변 노동자 주거지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살면서 시작되었는데, 가톨릭 노동청년의 자주적 조직의 성격을 가진 지오세와는 달리 사업장 밖 지역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의 문제와 노동조합 운동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으로 활동했다.

대구노동사목은 1985년 제도교회 밖에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교육, 상담, 조직활동을 하고 노동탁아를 하면서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낮은 곳 중의 낮은 곳을 찾아간다'는 기치하에 작은 공장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주로 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와 대구여성노동자회를 결성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발견 교육'과 같이 노동자의 영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중시하며, 노조 활동에서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고 투쟁 목표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가톨릭의 생명·평화 사상과 공동체주의 사상을 신사회운동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사상과 결합시키면서, 지역사회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돌봄노동의 사회화' 문제와 같이 일터(생산)영역의 의제와 삶터(재생산)영역의 의제를 함께 연결하여 해결하려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은 과거에 정치적 노동운동이나 전투주의 노동운동이 주류를 이뤘을 땐 경제주의적인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고 정치적 노동운동단체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신자유주의체제하에 노동운동의 조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탈근대적 노동운동과 대안적 조직을 추구하는 대구노동사목의 활동방식을 통해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대안적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 주요어: 대구, 노동운동, 노동사목, 가톨릭노동청년회, 여성노조

1. 머리말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1990년대 이후 한

국사회에 신자유주의 지구화체제가 확산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앞세운 노동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조합조직이 주축이 된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진보정당도 분열된 상태이다. 또한, 노동운동 진영 전반에 기업별 노조 중심주의가 주를 이루고 정치적 노동운동이 퇴조한 상태에서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넘어설 수 있는 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자본과 국가권력의 탄압에 의해 싸움은 장기화되고 있고 강화된 탄압을 이기지 못한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장기파업투쟁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가톨릭 사회운동단체들이다. 지난 수십 년간 가톨릭 사회운동은 한국사회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기층민중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용산참사 현장과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현장에 함께 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개발정책에 맞서는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싸움에 지속적으로 결합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대한문 농성 현장과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 함께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에 나서면서 사회참여 활동을 더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연합뉴스 2013/07/25; 한겨레 2013/08/26 등). 특히 보수적인 대구·경북지역에서 사제 100여 명을 포함한 500여 명의 수도자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한겨레신문 2013/08/14).

이 글에서는 최근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부각되고 있는 가톨릭 사회운동, 특히 가톨릭 노동운동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198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년부터 현재까지 28년째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가톨릭 노동운동단체인 대구노동사목의 활동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노동운동단체의 활동방식과 이 단체의 활동방식을 비교하고 이 단체가 보수적인 대구지역에서 이처럼 긴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동력을 파악하여, 가톨릭 노동운동의 특징과 현재 한국노동운동에 대해 갖는 대안적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관련자의 구술자료와 1차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집필했다. 주요하게는 대구노동사목의 김영숙과 이태숙의 구술자료를 활용했다. 김영숙과 이태숙은 필자가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던 2004년 2월에 1차 면담을 한 바 있으며, 최근 2013년 9월에 2차 면담을 했다. 또한, 1970년대 대구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이하 지오세) 활동에 대해서는 당시 대구교구 지오세 회장을 한 장명숙을 2004년 2월에 면담하여, 그 구술자료를 활용했다. 가톨릭노동사목의 전국적 흐름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회장을 했던 박순희를 2013년 11월에 면담하여, 그 구술자료를 활용했다.[1]

대구노동사목과 관련한 1차 문헌자료는 『노동사목자료』(강승구·김상숙·임채도·임순광 편 2005),[2] 『故 이성경 유물자료집』(강승구·김상숙 편 2005)[3]에 수록된 1차 자료들을 주로 활용했다. 가톨릭 노동운동의 전국적 흐름에 대해서는 한국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이하 지오세)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참고했다.[4]

---

1) 구술자들의 인적사항은 이 글의 말미에 상술하였다. 김영숙·이태숙·장명숙이 2004년에 구술한 자료의 원문은 『근현대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대형과제 연구단, 2006)에 수록되어 있다.

2) 대구노동사목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편집한 자료집이다.

3) 2003년에 작고한 대구지역 여성노동운동가 이성경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모은 자료집이다.

학계에서 사회운동사나 노동운동사 분야에서 가톨릭 노동운동에 대해 연구한 것은 1970년대 지오세의 활동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 연구들은 주로 1970년대 천주교의 지오세와 개신교의 도시산업선교회(이하 산선)의 활동을 묶어서 당시 민주노조운동에서 교회단체가 한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1988년 이후 연구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 교회단체를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세력으로 보는 입장(신광영 1996; Kim 1997; 이옥지·강인순 2001), ② 교회단체가 이념이나 활동방식의 한계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으며 오히려 한계를 형성했다고 보는 입장(최장집 1988; 전순옥 2004; 이광일 2001) 등이 있다. 한편, 김원은 지오세와 산선은 교회단체로 통칭되고 있기는 하지만 활동방식과 운동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고 보면서, 지오세는 특유의 의식화·조직화 원리 및 중앙위계적 조직방식 때문에 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낮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김원 2004a; 김원 2005). 이 글에는 이러한 평가에 대한 구술자들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2. 지오세운동과 노동사목운동의 전국적 흐름

한국의 가톨릭 노동운동은 1970년대 왕성했던 지오세의 운동과

4)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25년사』(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1986),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50년의 기록』(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50년의 기록 출판위원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가톨릭 노동사목 20년』(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2004a) 등이 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가톨릭노동사목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지오세는 1925년 벨기에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과 노동계,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려는 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모임(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1986, 43)"이다. 한국 지오세운동은 1958년에 시작했고, 1967년 강화도 심도직물사건 등을 거치면서 신앙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회원 가운데 노동자 비율이 증가하고 오스트리아 린츠 국제평의회(1975)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노동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풍모방노조, 동일방직노조, YH무역노조 등 당시 주요 민주노조의 운동에 이념적·조직적 지원세력이 되었다(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50년의 기록 출판위원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69-81).

지오세운동은 노동자 개인의 변화·발전, 당사자들의 자주적 운동, 생활 나눔 중심의 소모임 활동을 강조하므로, 노동자 개개인이 운동에 대한 사명감을 형성하고 현장에서 노조운동의 일상적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1970년대 민주노조에서 여성노동자의 자매애를 바탕으로 한 일상적 소모임 활동이 활발했고, 이것이 노조활동의 대중적 토대를 구성했던 것은 지오세운동 방식의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5] 그러나 지오세운동은 지역이나 교구에 따라 편차가 컸다. 그것은

5) 여성노동자들의 일상적 유대가 노동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한 연구로는, 콘트롤데이터와 삼성제약 사례에 대한 방혜신의 연구, 원풍모방 사례에 대한 정미숙의 연구, YH무역노조 사례에 대한 조옥라의 연구사례를 들 수 있다(방혜신 1993; 정미숙 1993; 조옥라 1994, 51-53). 또한, 김원은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주도한 민주노조 사업장의 기숙사와 소모임 문화를 분석하면서, 여성노동자들 사이에 형성된 유사가족(類似家族)적 성격을 지닌 일상적 관계망과 자매애는 한국 여성노동자 문화의 특징이며, 여성 주도로 민주노조를 유지시킨 중요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김원 2004b). 1970년대 원풍모방노조 부지부장이었던 박

지오세 자체가 가톨릭 노동청년들의 멤버십 위주로 운영되는 자주적 조직이라는 성격에서 기인한다. 성직자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산선과는 달리, 20대 중후반의 '투사'에 의해 이끌어지는 이 조직은 의식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며 미성숙된 조직일 수밖에 없었다.[6] 또한, 지오세 운동은 가톨릭교회의 성직자-평신도 간의 위계구조에 의해 지도신부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오세운동은 교구 신부나 지도투사의 인식 수준에 따라 활동의 지역적인 편차가 컸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전반기의 상황을 보면 전주, 광주, 인천, 수원, 서울 북부 등은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반면, 서울 남부, 부산, 대구는 신앙운동 중심의 성향을 지니며 노동운동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김영숙 구술 2004; 박순희 구술 2013). 그래서 당시 지오세 노동자들의 다양한 활동성향을 권위 의존형, 비체계적 개혁형, 체계적 연대형으로 나눠서 평가한 경우도 있다(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50년의 기록 출판위원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89-156).

순희는 자신을 포함한 지오세 회원들이 노조 간부로 있었던 원풍모방, 동일방직 외에도 당시 여러 민주노조의 일상활동 방식에 지오세 생활소모임의 영향이 컸다고 증언했다(박순희 구술 자료 2013).

6) 김원은 당시 지오세운동을 평가하면서, 지오세 운동은 당시 민주노조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당사자 운동을 지향하고 투쟁보다 협상 중심의 활동 방식을 주로 취했기 때문에, 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력이 낮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김원 2004a; 김원 2005). 이러한 김원의 평가에 대해 박순희는 "당시 산선의 경우 구성원인 노동자보다는 지도자인 성직자에 의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활동했던 때가 많았다. 특히 당시 산선활동의 주축이었던 영등포산선의 경우, 이 조직의 지도자인 인명진 목사의 강한 카리스마에 의해 교육이 주입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지오세에서는 성직자가 노동자에게 복음적·성서적 측면의 지도를 하며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후견인 역할을 주로 하였으며 일상생활이나 현장활동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오세 자체가 20대 노동자들의 멤버십 위주로 운영되는 노동청년들의 자주적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 변화·발전과 당사자들의 자주성을 강조하므로 실천의 속도는 느리지만 끈질기다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박하였다(박순희 구술 2013).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오세운동은 1970년대 후반에는 가톨릭노동사목의 운동으로 이어졌다.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이 극심해지고 해고자가 양산되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많은 활동가들은 노동자 거주지역으로 들어가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시도했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수도회 소속 수도자, 성직자들이 공단 주변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살면서 현장교회, 노동자공동체를 시작한 것이다. 1977년 메리놀 외방전교회에서 부평노동사목을, 포교성베네딕도 수녀회에서 성남 만남의 집을 만들었고, 이후 각 지역에서 가톨릭노동사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가톨릭 노동운동가들은 1984년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법개정서명운동'을 벌이고 당시 만들어져 있던 몇몇 지역의 노동사목을 주축으로 가톨릭노동사목연구소를 창립했다. 이 연구소를 통해 각 지역 노동사목은 연대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대는 1985년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결성으로 나아갔다.

이후 각 지역의 노동사목은 1990년에는 10개 교구 22개 지역으로 확장되었다.[7] 그들은 현장에서 민주노조운동이 활발하지 않던 시기에 외곽 센터로서 교육과 상담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기에 민주노조 건설을 지원하고, 1990년 전노협 건설, 1995년 민주노총 건설에 토대를 마련했다(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2004a, 17-56).

---

7) 1977년부터 1980년대 말까지 결성된 각 지역 노동사목으로는, 인천교구 부평노동사목(1977), 수원교구 성남 만남의집(1977), 전주교구 이리 근로자의집(1980), 수원교구 성남 메리놀 공동체(1981), 인천교구 부천 노동사목(1981), 마산교구 노동문제 상담소(1984), 부산교구 만남의 집(1985), 대구교구 구미 근로자센터(1985), 수원교구 반월 월곡성당 노동사목(1986), 인천교구 주안 골목집(1986), 전주교구 전주 근로자의 집(1986), 전주교구 군산 근로자의 집(1986), 대구교구 대구 나눔의 집(1986), 원주교구 사북 노동문제 상담소(1986), 수원교구 광명 철산리 노동사목(1986), 광주교구 성요셉 근로자의 집(1986), 서울교구 성수 동부노동상담소(1987), 대전교구 노동자의 집(1988) 등이 있었다(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2002).

가톨릭노동사목은 민주노총이 건설된 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지원, 노동자가족 지원 등 민주노총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활동해왔다. 이후 각 지역 노동사목은 초기 활동가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동사목을 떠나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예전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하게 되자 다른 역할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2013년 현재 대구, 인천, 부산노동사목 및 이주노동사목을 주로 하는 전주노동사목만 남아서 활동하고 있다(박순희 구술 2013; 김영숙 구술 2013;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2004a, 17-30).

이처럼 가톨릭노동사목의 운동은 지오세운동을 계승한 것이지만, 지오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곽의 전문 활동가조직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노동사목의 활동가들은 자신의 역할을 활성가, 촉진자, 즉, 노동자들의 영성을 일깨우고 촉진하면서 운동의 당사자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노동사목은 지역마다 처한 실정에 따라 주안점을 둔 부분이 달랐으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현장교회'를 지향해왔다. 즉, 제도교회가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데 이념적·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지역현장 속으로 들어가 노동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현장공동체를 지향해왔다. 이것은 남미의 가톨릭교회에서 해방신학에 기초하여 기초공동체운동을 벌여나갔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둘째, 합법적 공간에서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는 '센터'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주로 초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기발견 교육, 문화교육 등을 하여 노동자의식을 일깨우고 지역주민 생활에 결합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노조 활동가 교육, 노조 결성 및 탄압에 대한 상담활동, 지역 내 공동투쟁 참여 등의 활동을 함께 진행해왔다(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20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3. 대구노동사목의 활동과정

1985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은 4개의 시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1985년에서 1988년의 시기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 양성과 초보 노동자 의식화교육과 함께 탁아소와 진료소를 운영하며 노동자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일에 주력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1989년에서 1993년의 시기는 노조 건설을 지원하는 노동자교육 전문조직으로서 전노협 건설과 민주노총 건설에 기여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1994년에서 1999년까지의 시기는 미조직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회원조직으로 전환하여 대중조직으로서 독자적 방향성을 모색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는 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를 건설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운동에 초점을 맞춰 운동해온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구노동사목의 활동과정 구분

연도	조직형태	중심활동내용과 과제	주요활동 단위	구성원의 수
1985~1988	노동자거주지역 공동체	초보 노동자 의식화교육, 민주노조 결성 지원, 노동자가족 생활 지원 (탁아소, 진료소 사업 등)	상근자, 운영위원회	상근 2~4명, 운영위 6명
1989~1993	현장 외곽 활동가조직, 전문교육기관	민주노조 결성 지원활동, 전노협 건설의 토대 마련 (탁아소는 1992년까지 운영)	상근자, 운영위원회	상근 2~4명, 운영위 6명
1994~1999	미조직노동자의 대중조직	회원조직을 통한 작은 공장 노동자 지원	상근자, 운영위원회, 회원대중으로	회원 50~60명과 외곽 소모임

			구성된 각종 소모임	
2000년 이후	조합조직 및 회원조직과 활동가조직의 결합	여성노조, 여성노동자회 운동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돌봄노동 사회화	대구노동사목, 여성노조, 여성노동자회, 일하는여성 아카데미 등 여러 조직으로 분화	여성노조는 2천여 명, 여성노동자회는 70~80명, 상근자 8명, 과거 노동사목 회원 50~60명은 장년후원조직으로 전환

1) 결성 초기 몇 년간의 활동: 노동자 거주지역의 공동체적 활동

대구지역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공업도시라기보다는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도시이다.[8] 제조업은 여성 중심 산업인 섬유산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공단이 일찍 형성되었으나 대공장보다는 사업장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이 많았다(박광희·박경애 2004, 79).[9] 남성 중심 산업인 기계·금속산업은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섬유부품을 생산하다가 1980년대부터 울산 대기업의 자동차부품 하청 생산에 주력하면서 지역 안에서 점차 비중이 늘어났다. 역시 영세사업장이 많았다(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8, 70-71).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면, 대구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민들의 의식이 진보적이었고 사회운동도 활발한 지역이었다.[10] 그러나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지역 출신

8) 대구노동사목이 결성되던 시기인 1986년 통계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광공업 사업체 수는 15,866개인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81,501개였다(통계청, 1987).

9)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경우 1987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대구에는 고용규모 50인 미만의 기업이 78.3%를 차지한 반면, 500인 이상의 기업은 0.9%에 불과했다(경제기획원, 1987).

10) 대구지역에서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이승만 후보를 압도할 정도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치인, 군인들이 정권 담당자가 되면서 보수세력이 계속 지역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했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감정'에 의해 사회의식 발전을 제약당했다(김상숙 2007, 40-41).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대구지역에서는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은 수도권지역이나 호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구지오세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신앙 중심적인 성향을 벗어나 노동운동적 성향을 띠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는 초기 활동가였던 장명숙, 김영숙, 구필서, 김보규, 이병학 등의 노력이 컸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아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그들은 가톨릭근로자회관을 센터로 하여 노동자 의식화를 위한 소모임활동과 문화활동을 했고 아리아악기(1978) 등의 투쟁을 지원했다. 또한 혜성양행(1977), 회전니트(1978), 한우통상(1979) 등에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 결성을 시도하다가 해고되기도 했다. 1978년에는 재야 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야학'이라는 노동야학을 운영하기도 했다(장명숙 구술 2004; 김영숙 구술 2004; 대구가톨릭청년회 50주년기념추진위원회 2011).

대구노동사목은 대구지오세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1985년 노동자와 수도자 출신 활동가 등 4명이 모여 결성했다. 1980년대 초중반의 시기는 한국 노동운동이 1980년 광주민중항쟁 직후의 극심한 탄압을 극복하고 대구 택시노동자 시위, 대우자동차파업, 구로동맹파업과 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대구지역에는 아직 노동자 대중운동이 미약했으며, 현장 안팎에서는 학생출신 활동가

였다(온만금 2000). 1960년 4.19 전후에는 2.28학생운동을 비롯한 학생운동, 교원노조와 제일모직노조 등의 노동운동, 한국전쟁피학살자유족회운동 등의 인권운동과 통일평화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다(이윤갑 2004).

들과 소수의 해고노동자들이 구성한 비합법 서클조직과 민중교회, 지오세, 노동야학 출신 노동자들이 분산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대구지오세 출신으로 1981년~1984년 사이 지오세 전국본부 여자회장을 했던 김영숙은 당시 부평, 성남, 전주, 부산에 이미 노동사목이 결성되어 있던 상태에서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를 결성하려고 노력한 바 있었다. 그는 1985년 대구로 오면서 지오세 출신 노동자 박두봉, 김정일과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근무하던 활동가 이태숙과 결합하면서 '대구가톨릭노동사목'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들은 초기 1년 동안 독자적인 공간 없이 교육활동을 진행하다가 1986년 11월 고성동에 활동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여기서 1년간 활동하면서 1987년 항쟁기를 겪은 뒤, 1987년 11월에 공단 인근 노동자 주거지역인 비산동으로 옮겨 '나눔의 집'을 열고 활동 목표와 방향을 정비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구노동사목 2002; 김영숙 2011).

대구노동사목의 목표와 방향

- 목표: 1) 노동현장의 복음화
  2) 교회 쇄신
- 방향: 1)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노동자들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개선과 노동자들의 올바른 의식화와 조직화
  2) 제도교회를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자각과 노동자들의 교회공동체 건설
- 내용: 1) 인성개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인간성 정립
  2) 노동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을 지원·지도
  3) 노동자 미사, 성서모임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 가치관 확립
  4) 연대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실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대구노동사목이 초창기에 주로 했던 일로는, ① 노동자 상담, 교육, 조직 활동, ② 노조결성 활동 지원, ③ 노동자 주거지역의 주민사업을 들 수 있다. 우선 그들은 미조직 상태의 초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기발견 교육과 노동교실, 한문교실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소모임을 운영하는 한편, 노동법강좌를 열었다. 그런데 초기에 지오세 회원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활동은 점차 민주노조 건설 지원, 노조의 파업 및 해고자 복직투쟁 지원,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졌다.

또한, 그들은 비산동에 나눔의 집을 마련한 뒤 지역실태조사를 한 결과 저소득층 여성들이 육아문제 때문에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1988년 2월 '나눔탁아소'를 열었다. 이 탁아소는 당시 영유아보육법이 법제화되지 않고 노동자주거지역에 보육시설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던 상태에서 시작한 것으로, 저소득층 노동자 가정 유아들을 하루 13시간가량 비영리로 돌봐주었다. 또한, 탁아소를 이용하는 부모들을 상대로 자모회와 자부회를 운영하고, 엄마 공부방, 수련회, 일하는 엄마들의 마당 등의 행사를 벌이면서 일하는 여성들의 의식화를 위하여 노력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팀과 연계하여 무료 진료사업도 벌였다. 탁아소와 진료소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다른 탁아소들이 생기고, 대구노동사목 자체에는 노조 관련 상담업무가 폭주하게 되자 1992년에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에도 어린이그림방 운영, 공부방 위탁 운영 등을 하면서 지역주민사업을 꾸준히 이어왔다(이태숙 구술 2004).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운동, 일터와 삶터 문제를 결합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2000년대에는 여성노조운동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2) 노동운동 지원 강화 및 교회 쇄신의 노력

1987년에서 1992년까지의 시기는 한국 사회운동사에서 독특한 고양기 중의 하나였다. 노동운동의 경우 1987년 7·8·9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이 고양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전노협 건설 의지로 모아지게 되었다. 대구지역에도 1987년 칠팔구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의지는 높았으나, 노동자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면서 노동자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고 대중운동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노동자 출신의 활동가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노동사목은 민주노조 건설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갔다. 파티마병원, 대우기전, 현대금속, 승리기계, 태양어패럴, 대구염색공단노조, 제일섬유, 무림제지, 대구인쇄, 대구정신병원, 오리온프리토레이, 가톨릭병원노조 결성 지원이 그것이다. 노조 결성 지원활동은 지오세 회원뿐 아니라 지오세 회원이 소속되지 않은 사업장이나 개인을 대상으로도 진행했다.

1989년부터는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이하 대구노련)준비위원회의 공동투쟁본부에 결합하여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산하의 대구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도 결합하여 함께 활동했다. 노조 결성 지원활동은 경북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진행되었는데,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자기발견 교육이 노동조합 건설로 이어지기도 했다. 즉, 포항, 안강, 경주지역 등의 청년들을 위한 자기발견 교육은 포항 강원산업, 안강 풍산금속 등 금속업체의 노조 결성 지원으로 이어졌고, 경주지역과 안동지역의 택시노조 건설 지원으로도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1989년 11월 대구노련의 창립, 1990년 1월 전노협 결성의 토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구노동사목은 1991년에는 지역사회의 전선운동조직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에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단체 대표를 부의장으로 파견하여 지역 민족민주운동에 기여하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후반에는 대구지역에서도 가톨릭 내부의 여러 분야에서 대사회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계속 보수일변도로 나아갔다.[11] 1986년부터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 6·7대 국회의장을 지낸 이효상의 아들인 이문희 대주교가 교구장을 맡으면서 이러한 보수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문희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소수의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진행하던 사회참여적인 활동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탄압했다. 결국 교구 안에 결성되었던 농민, 청년단체들은 1989년 전후로 대부분 교회에 의해 해체되거나 교회 밖으로 나갔으며, 사회운동을 하던 신자들도 교회 안에서 활동을 포기하게 되었다(『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07/03).[12]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노동사목은 결성 초기부터 노동현장의 복음화와 교회 쇄신을 목표로 했다. 즉, 그들은 가톨릭교회가 가난한 사람의

---

11)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보수성과 관련하여,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매일신문사 사장과 명예회장을 지낸 전달출 신부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등 교계 안에서 고위직을 두루 거친 이종흥 신부가 의원으로 참가해 전두환 신군부정권의 군부독재권력 수립에 기여했던 것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당시 광주에서는 천주교 사제들이 앞장서서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것과 대조적이다(서중석 2012).

12) 대구가톨릭농민회는 안동교구와는 달리 결성 초기부터 교회의 박해를 받았고, 이후 전농으로 전환하면서 시들어버렸다. 청년운동의 경우 1988년 신암성당청년회와 큰고개성당청년회 등 청년회 몇 군데가 모여서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천사협)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무렵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성당을 건립하는 문제로 반발하면서 천사협에 지원요청을 했고 이를 지원하던 천사협은 교구청과 대립하게 되면서 신암성당청년회는 해산당한다. 이때 해산당한 청년들은 빈민주거지역인 대현동에 자리 잡고 감나무골공동체를 만들어 오늘날까지 지역주민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김영숙 구술 2013;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07/03).

교회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교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도 교회의 노동관을 따르지 않고 자본주의의 시장노동 논리에 종속되는 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인간 개개인이 곧 하느님 나라요, 교회라는 사명감 아래 노동자들의 현장교회를 만들고자 했다. 이는 노동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교회 밖 현장에서 복음적 가치를 전파하며 가톨릭 노동운동을 전개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교회의 위계질서 말단에 속하는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여 교회공동체에 자극을 준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대구노동사목의 이러한 시도는 계속 교회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초기에 '대구가톨릭노동사목'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했던 그들은 교구 밖에서 평신도가 '가톨릭'과 '사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교구와 갈등을 겪자, 조직의 명칭을 '대구노동사목'으로 바꾸었다(이태숙 구술 2004). 그래도 1988년까지는 몇몇 성당에서 교육공간을 제공받거나 탁아 물품을 지원 받는 등 부분적으로 교구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89년에서 1991년 사이 가톨릭사업장(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인 파티마병원노조의 활동을 지원하고,[13] 청도성당 신자이자 청도주신기업노조 위원장 최태욱의 분신자살 문제를 수습하면서,[14] 제도교회와

---

13) 파티마병원노조 활동을 지원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88년 대구노동사목은 포교 성베네딕도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파티마병원의 약국에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 건을 상담받고 구제신청을 넣어 부당노동행위 건을 합의하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병원 노동자들은 이 일을 계기로 1989년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병원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파업을 단행했다. 이후 1991년 5월 임투를 계기로 2차 파업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공권력이 투입되어 농성 중이던 노조원 180여 명 중 43명을 연행했고 이 중 19명이 해고되고 4명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대구노동사목은 파티마병원노조 결성과 파업과정 전반을 지원했고, 파티마병원 측은 대구노동사목을 노조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양자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김영숙 구술 2004; 이태숙 구술 2004).

14) 노동자 최태욱은 청도군 소재 섬유봉제공장인 (주)주신기업에 근무하면서 본당 활동도 열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대구노동사목은 보수적인 제도교회로부터 극단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양자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3) 민주노총 건설 후 '작은 공장 노동자 지원사업': 회원제 대중조직으로의 전환

1992년 이후 한국사회운동 진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권이 해체되었고 국내에는 민간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분화하고 정당운동과 조합운동이 분화하였다. 노동운동 진영에는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대중운동의 구심이 되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 큰 공장의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었지만, 3공단, 이현공단 등 작은 공단에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노조운동의 영향권 밖에서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었다.

선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는 후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던 대구노동사목은 1994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자 '작은 공장 노동자 지원사업'을 전개하기

히 하던 천주교 신자였다. 그런데 회사의 상습적인 임금체납에 항의하다 해고당한 뒤 청도성당 주임신부를 통해 대구노동사목에 상담을 요청했고 대구노동사목의 구제신청으로 복직이 되었다. 복직이 된 그가 노조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맡자 회사는 그를 다시 해고하고 빨갱이로 모는 등 탄압을 가했다. 괴로워하던 최태욱은 1990년 7월 8일 청도성당에서 미사 직후 성당 뒷마당에서 분신했다. 그가 분신한 후 대구노동사목은 '사태해결을 위한 기도회 및 추모미사'를 여러 사제에게 부탁해 동의를 얻었으나, 사제들이 동의한지 이틀 만에 대구교구의 이문희 대주교는 사제들이 어떠한 협력을 해서도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7월 27일 교구의 반대를 물리치고 모인 노동자와 신자들은 잠겨 있던 성당 마당에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최태욱 노동열사 분신대책위원회 1990;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1/12/08).

시작했다. 즉, 노조가 없는 10인 이하 작은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노동교실을 여는 한편, 등산반, 영상반, 노래반 등의 소모임을 만들고 그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러한 취미 소모임을 통해 의식화된 노동자들이 현장 소모임을 조직하도록 하고, 현장 소모임을 조직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회원들은 지역노조를 준비하기 위한 소모임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낮은 곳 중의 낮은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가톨릭노동사목운동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무렵에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추진위원회에 교육위원을 파견하여 교육과 연대 사업을 함께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민주노총이 출범하자 사실상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조합 지원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그 대신 '작은 공장 노동자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대구노동사목을 회원제 조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상근자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전문활동가 조직에서 대중조직으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회원제 조직으로의 전환은 1996년에서 1997년에 이르는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당시 여러 소모임에 참여하던 50여 명의 회원을 모아 내부 조직을 현장사업위원회, 가톨릭사업위원회, 노래반, 산악반(나눔산악회)으로 나누고, 각 단위의 주체를 모아 대표를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매달 '회원 만남의 날'을 통해 전 회원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조직에는 주로 3공단, 이현공단에서 소위 '마찌꼬바'라고 부르는 영세 금속업체에 다니던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남성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회원제 조직, 즉 대중조직으로의 전환은 이후 지역노조 건설 논의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노래반은 노동가요를 배우고 1년에 한 차례 큰 공연을 준비하는 형태로 소모임 활동을 하였는데, 외환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기 직후인 1998년 3월 'IMF 인생'이란 제목으로 대량해고에 따른 노동자의 대응을 주제로 하는 공연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때 공연한 내용이 이후 신자유주의체제에 맞설 대안적 형태로서 지역노조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이태숙 구술 2004). 당시 이 공연을 준비하던 과정에 구상했던 지역노조에 대한 전망은, 지역의 다른 노동운동단체인 성서현장연대(노동자의 미래를 열어가는 현장연대)에 의해 구체화되어 2002년 성서공단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4) 낮은 곳 중의 낮은 곳을 향하여: 여성노조·여성노동자회 결성과 대안적 노동운동 추구

대구노동사목은 2000년 이후에는 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를 건설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운동에 초점을 맞춰 운동해오고 있다. 여성노조 건설 이후 13년 동안의 과정은 대구노동사목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온 시기로 별도의 글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몇몇 측면만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의 결성과 비정규직 차별철폐운동

1998년 외환위기의 한파가 닥쳐오자 대구노동사목도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월급의 5%, 10%씩 내면서 운영비를 책임져오던 회원들이 하나둘 실직자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단체를 떠나게 된 것이다(이태숙 구술 2004). 반면 임금체불, 퇴직금이나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사건 등 장년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이 늘어났다. 신자유주의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 여성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노동사목은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사업'을 자신들의 중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신자유주의체제에 맞서는 또 다른 대안으로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대중조직인 여성노조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 여성노조는 1999년 8월 서울에서 400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전국여성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지역 지부 결성은 과거 민주노조 운동을 하던 여성노동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각 지역의 여성노동자회들이 주도하였다.[15] 그러나 대구에는 여성노동자회에 해당하는 조직이 없었으므로, 2000년에 대구노동사목의 회원 6명이 전국여성노조 대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만들었다.[16] 추진위는 각종 선전전과 캠페인, 집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최저임금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뒤 2001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를 결성하였다.

6명으로 시작한 여성노조 대구지부는 2001년 고성새마을금고 부당해고 반대싸움을 첫 싸움으로 시작했다. 그 뒤 각 대학 미화원의 조직화와 권리 찾기 투쟁을 벌였고,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조무사들의 조직화와 권리 찾기 투쟁을 벌이면서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로 발전하였다.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최저임금 인상투쟁, 특수고용 현실 알리기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을 13년 동안 진행하여, 현재 조합원이 2천여 명인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이 조직에는 학교 비정규직 지회와 대학 미화원 분회 여성노동자 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여성노

15) 여성노동자회는 1987년 3월 서울지역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를 창립한 후 각 지역에서 만들어져 2009년 현재 서울, 인천, 안산, 부천, 수원, 전북, 광주, 마산창원, 부산, 대구, 경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 결성되어 있다(이옥지·강인순 2001; 손영주·신경아 2009).

16) 당시 김영숙, 이태숙, 배현주, 김종련, 배현주, 이정남, 김낙분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였다(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20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동자들이 가입해 있고, 조합원의 연령대도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대구노동사목은 여성노조에 간부와 상근자로 파견하고, 사무실 공간, 재정 등 모든 것을 투여하면서, 각종 교육과 투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2011).

〈표 2〉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분회·지회 현황

명칭	결성시기	주요 활동
경북대 미화원분회	2001년	경북대 건물 청소 담당 미화원 90명이 주축.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최저임금인상 캠페인, 동일노동·동일임금 쟁취투쟁 등 현장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계명대 미화원분회	2002년	계명대 건물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주축. 고령자가 많아 사업주의 탄압으로 활동 중단.
안동대 미화원 분회	2004년	안동대학교 건물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이 주축. 체불임금 진정 등 현장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는 투쟁을 기본으로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도 참여. 지리적 여건 때문에 2005년 현재 민주노총 경북일반노조로 전환.
경북대병원 미화원분회	2007년	경북대병원 청소미화원이 주축.
학교급식지회 대구지부	2002년	대구지역 30여 개 초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원들이 주축.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
경북영양사지회	2004년	경북지역 중학교 급식실의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주축.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활동.
대구영양사지회	2004년	대구지역 70여 개 중학교 급식실의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주축.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사무보조원 지회	2004년	대구지역 60여 개 중고등학교 행정실, 교무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무보조원들이 주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근로조건 향상, 고용 안정을 위해 활동.

자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2011; 전국여성노동조합 홈페이지

(2) 대구여성노동자회 건설과 '돌봄노동 사회화·돌봄의 사회화' 운동

대구노동사목은 여성노조와는 별도로 가정관리사와 같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조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에는 대구여성노동자회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다른 지역의 여성노동자회가 과거 민주노조운동을 했던 여성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70명~80명 정도의 중장년층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노동사목은 이 단체의 회원들에게 인성교육과 기능교육을 하여 회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일자리를 파견해주고 있다. 또한, 실업극복국민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같은 사회기관의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약자에 대한 무료 간병이나 보육 도우미 파견 등 돌봄노동 사회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사회적 기업 '손길'을 만들었으며 현재 보험협회의 지원으로 35가구에 무료 보육 파견활동을 하고 있다(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2011; 김영숙 구술 2013).

그리고 이와 같은 '돌봄노동의 사회화' 활동은 '돌봄의 사회화' 활동을 결합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운동과 지역공동체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망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즉,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노년층 여성들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을 연결하는 여성의 생애 순환적인 품앗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엄마 월례회, 수련회, 교육 등을 열고 의식화하여, 그들이 단순히 돌봄 노동자나 돌봄 수혜자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더불어 나누는 삶을 실현하는 공동체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구노동사목은 대안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통하고 품앗이 장터를 운영하는 한편, 한부모 여성가장 긴급대출, 한부모 교육 등 비정규직 여성들의 생활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려는 활동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여성 아카데미 대구'를 만들어 자아성장, 의사소통훈련, 양성평등, 리더십, 에니어그램, 파트너십, 사회인식 등의 교육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소통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사업도 전문화하여 진행하고 있다(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2011; 이태숙 구술 2013).

4. 대구노동사목 활동의 특징과 대안적 측면

1) 대구노동사목과 다른 지역 노동사목의 차이점: 노동자 평신도의 자주적 사목

전국의 노동사목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10개 교구 22개 지역에서 활동했으나 2013년 현재 대구, 인천, 부산노동사목 및 이주노동사목을 주로 하는 전주노동사목만이 남아서 활동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노동사목들은 초기에는 수도원 소속 수도자나 평신도들이 운영했으나 현재는 교구에서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구노동사목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교구 밖에서 활동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노동자 스스로 자립하여 하는 사목이고 평신도 스스로가 하는 사목이라는 의미가 있다.

우선 1980년대 이후 만들어진 현장 외곽의 노동단체들은 지식인이나 학생운동 출신자가 주도한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대구노동사목은

노동자 스스로 자주적으로 만들고 이끌어온 단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은 천주교 교회의 위계적인 구조 안에서 성직자만이 사목을 할 수 있으며 성직자가 결합하지 않은 일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으로, 교회의 위계적인 구조 안에서 말단에 위치하는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대구노동사목의 구성원들도 결성 초기에는 교구 안에서 활동하려고 애썼으며 교구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은 거절당했고, 조직 명칭 문제, 가톨릭사업장인 파티마병원노조 지원 문제, 노동자 최태욱의 장례 문제 등을 계기로 교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가톨릭 노동단체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는 단체 지도신부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 자신이 교회라는 생각 속에서 노동사목운동을 계속해나갔다.

> "'사목'이라는 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압력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수도자, 성직자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사목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가 하는 노동사목이라는 의미에서 단체 이름에 '사목'이라는 단어를 계속 고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하느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나 자신이 교회라는 생각으로 교회 밖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했어요."(김영숙 구술 2013)

천주교회와 같이 교구제도가 엄격한 종교에서 교구 밖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다른 지역의 노동사목도 교구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한국 천주교회 전체로 봤을 때도 노동운동이나 정의평화운동 등 사회참여적 흐름은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주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구의 성향에 따라 노동사목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박순희 구술 2013).[17] 이에 비해 대구노동사목은 제도교회의 지원을 거의 얻지 못했다. 활동공간 전세금은 초기에 다른 교구의 도움으로 마련했고 두 명의 대표는 상근비 없이 활동했지만, 다른 상근자 활동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 겪었다. 또한, 교구와 갈등이 심할 때는 보수적인 성직자나 수도자들로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과격한 조직', '사람까지 죽게 만든 배후세력'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교구 안에서 노동사목을 하는 경우에 비해 장점도 있었다. 교구에 소속된 노동사목은 교구에서 발령 받은 사제가 책임자가 되고 활동가는 실무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담당 사제는 임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사제가 바뀌면 활동방침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교구의 지원은 받을 수 있으나 상근활동가가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고 교회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에 비해, 대구노동사목의 활동가들이 교구로부터 자율적이었던 것은, 대구처럼 사회운동을 하기에 열악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지역 노동사목에 비해 더 긴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다. 다음은 구술자 박순희의 의견이다.

"대구노동사목은 교회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섰다는 게 다른 노동사목과 다르지요. 사실상 순토종의 진짜 노동자의 사목이라 할

17) 예를 들어 인천의 경우 부평, 부천, 주안 등 3개 지역에서 노동사목을 하다가 2010년에 통합했는데, 교구방침에 따라 센터 건물을 신축했으며 각 본당에서 제2헌금 등으로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한다(박순희 구술 2013).

수 있어요. 교구에서 건물을 크게 지어주고 재정 지원을 해주면 우선은 활동하기 좋아요. 그러나 사람은 돈을 받으면, 현장보다는 돈 주는 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중심이 되면 노동자가 사는 현장에서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제도화가 되면 될수록 몸이 둔해지고, 결국 일을 해도 버스 지나고 난 뒤 손드는 경우가 많지요. 이에 비해 대구노동사목은 끊임없이 지역으로 들어가 일하는 여성을 만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변화와 함께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노동사목의) 김영숙과 이태숙이 신앙의 동반자로서 친자매 이상 동지애를 보이며 28년 동안 꾸준히 함께 일해 온 것 자체가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결속된 인간화운동의 사례를 보여줍니다."(박순희 구술 2013)

대구대교구에서는 2009년경부터 정의평화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대구노동사목을 포함하여, 그간 교회로부터 소외받았던 지역 안의 가톨릭 사회운동단체에게 화해를 청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노동자 최태욱에 대한 장례미사가 최태욱이 세상을 떠난 지 21년 만에 청도성당에서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이름으로 거행되기도 하였다(『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1/07/17).

2) 정치적 노동운동단체와의 차이점: 노동자의 영성을 일깨우는 생활공동체운동

대구노동사목은 노동자의 영성을 일깨우는 인간화운동, 생활공동체운동을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노동운동단체들과 의식화와 조직화의 목표나 내용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1980년대 후반 대구지역에는 대구노동자협의회, 대구노동교육협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회와 같은 정치적 노동운동단체들이 있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대체로 사상적인 면에서는 변혁운동을 지향하면서, 노동계급을 변혁운동의 주력부대로, 노조운동을 포함한 노동운동을 변혁운동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운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하려는 인도주의적 이상에서 출발했으나 개인이나 집단을 도구화하는 경향을 막지는 못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교육할 때도, 지식과 이론 중심으로 계몽 위주의 교육을 펼쳤다. 즉, 정치경제학,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한국 사회운동사, 단위사업장 활동지침, 또는 당시 유포되던 비합법 문건이나 '원전' 등으로 교육했다. 조직화의 목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치적 노동운동단체에서는 노조운동을 하더라도 선진 노동자의 비합법적인 서클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운동방식도 남성중심적인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적 운동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역공동투쟁을 강조했으며, 노조조직 안에서도 선진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전투적 방식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운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당시의 정치적 노동운동단체들은 대체로 전투적 조합주의 또는 선도적 투쟁을 강조했고 군사주의적 문화를 갖고 있었다. 특히 당시 대구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던 대구노동자협의회는 중앙집중, 규율과 복종, 성과주의적 업무방식, 전투적 활동방식을 강조했다(김상숙 2007, 166-180).

이에 비해 대구노동사목에서는 노동자 개개인의 영성을 일깨움으로써, 노동자가 자신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운동을 추구했다. 이때 노동자의 영성을 일깨운다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빛을 발견하고 하느님이 창조한 본래의 자아, 즉 참자아를 찾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가난한 노동자의 마음 안에도 현장노동의 구조적 억압에 의해 찌든 자아가 아닌 참된 자아의 씨앗이 있으

므로, 이러한 본성을 일깨움으로써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이 중요한 창조사업을 하는 주체라는 것을 자각하여, 자기존엄성을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하느님 나라 건설운동에 동참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2004b; 김영숙 구술 2013; 박순희 구술 2013).

이러한 지향을 갖는 것이 사회구조의 변혁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꼭 천주교 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천주교 신앙이나 교리체계를 직설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아니다. 기존 노동운동에서 추구하는 과제를 함께 추구하되,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람의 인성이 바뀌고 노동자 개인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개인의 영성적 측면과 관계 지향적 측면에서의 수양과 훈련을 강조하고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노동사목은 특유의 방식으로 노동자 교육을 진행해 나갔다. 노동사목의 교육은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에 중점을 두는 정치적 노동운동단체의 교육내용도 흡수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이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 계발을 하는 자기발견 교육과 자존감향상프로그램 등을 기본으로 한다. 자기발견 교육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별명 짓기, 장님 안내하기, 사물과의 대화, 아리랑 곡선(인생 곡선) 그리기, 사진 말 찾기, 자기 장점 찾기, 자기 시간 관리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노동자들의 영성을 일깨워서 노동자로서의 참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교사는 주입식이나 강의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가 또는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피교육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교육을 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노동사목에서 하는 다른 여러 교육에도 이어진다. 그리고 이 활동은 생활나눔 소모임 활동과 연결되며, 이 소모임은 작업장조직과 생활공동체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와 같은 자기발견 교육 프로그램이나 생활나눔 소모임 활동은 지오세에서도 진행해온 것으로 남미 가톨릭교회에서 진행한 기초공동체운동의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18)]

그리고 이러한 지향은 운동원칙으로는 '낮은 곳 중의 낮은 곳을 찾아가는 운동'과 '투쟁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운동'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우선 노동사목은 선진 노동자보다는 '낮은 곳 중의 낮은 곳을 찾아간다'는 기치하에 초보 노동자, 작은 공장의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조건 개선에 더 주목했다(『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0/09/16). 그러므로 그들은 주창형 방식과 봉사형 방식의 운동을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운동과정에서 투쟁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당사자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즉, 많은 정치적 노동운동단체들이 변혁운동에 대한 강박 속에 조급하게 실천하면서 당사자들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던 것에 비해 투쟁 당사자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운동을 원칙적으로 강조했다. 이 원칙도 지오세의 운동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황상근 1989), 1980년대 후반에 한때 한국 사회운동 진영에서 주창되었던 대중노선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대구노동사목의 이러한 활동은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에 정치적 노동운동이나 전투주의 노동운동이 지역 노동운동의 주류를 이뤘을

---

18) 자기발견 교육과 생활나눔 소모임 프로그램은 메리놀 외방전교회와 포교 성베네딕도 수녀회 수도자들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지오세뿐 아니라 가톨릭의 다른 단체활동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오세의 교육내용은 『가톨릭노동청년운동의 지침』(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1977), 『가노청 일반지침: 생활 속의 사도직』(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발행연도 미상), 『벽돌 없는 학교 가톨릭 노동청년회』(황상근 1989)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가톨릭 노동사목의 일반적인 교육내용은 한국가톨릭노동사목현장 노동자의 벗이신 그리스도』(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2004b)를 참조할 수 있다.

땐 경제주의 활동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리고 외곽의 비주류단체로 비합법운동조직을 보조하는 '외피'의 활동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구술자들은 과거 정치적 노동운동단체의 의식화·조직화방식이 노동자의 일상적 현실을 무시하거나 노동자를 운동의 대상이나 도구로 보는 측면이 있었음을 비판했다.

> "정치적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과 우리는 사업장 안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 분들은 정치적 지형 변화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해 무엇을 메시지로 던질 거냐에 관심을 갖지요. 그리고 사건의 이슈화를 통해서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려 하고 치고 나가는 방식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효과는 빠르지만 결국 생각은 그 사람들이 하고 노동자는 몸만 움직이며 들러리 서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안 되며, 그런 것은 우리를 삭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김영숙 구술 2013)

> "자기발견과 생활나눔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사람이 밝아지지요. 70년대 지오세의 영향을 받은 민주노조의 노동자들은 소모임 속에서 생활나눔을 통해 함께 삶의 문제를 나누면서 운동해왔기 때문에 끈끈한 형제애와 동지애를 갖고 있었어요. 서로의 생활사정을 다 알고 지내므로 공동체가 형성되지요. 요즘의 노동운동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상처 입게 되고 안타까운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박순희 구술 2013)

이처럼 대구노동사목은 권력 지향적 운동보다는 개인의 영성을 일깨우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관계 중심적 운동, 이익 연대보다는 가치 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대적 성격의 운동, 이념보다는 사람에서 출발하며 공동체로 나아가는 운동,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운동을 원칙으로 추구해왔다.

3) 여성주의, 생태주의와의 친화성: 탈근대적 패러다임의 수용과 대안적 유연노동운동

대구노동사목은 선진 노동자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낮은 곳 중의 낮은 곳을 찾아서 봉사하는 노동운동을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 더 차별받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들의 조직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의 대안적 형태로서 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 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를 건설한 이후 대구노동사목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노동운동과 다른 방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대구노동사목은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조직이다. 그들은 초창기부터 여성 중심의 공동체적인 조직문화가 강했고, 여성노동자들의 일상생활 영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관계 지향적 특성을 살려나가는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여성노조운동을 하면서부터는 생태주의, 여성주의 등 지역시민운동 진영에서 주장하는 탈근대적 사상이나 의제를 자신들의 활동 속에 유연하게 흡수해오고 있다.

다른 노동단체들은 대체로 일터의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당면한 현안에 집중하면서, 여성문제나 생태문제를 인식한다 해도 계급문제에 종속적인 것으로 보다 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한 편이다(이태숙 구술 2013). 또한, 시민운동 진영은 탈근대적 패러다임에 의한 신사회운동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중산층 중심적인 경향을 띠다 보니 민중운동

의 실질적인 여러 의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구노동사목에서는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의 과제를 자신의 내부사업원칙으로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삶에 접목시키면서, 시민운동 단체들과도 지역적 차원에서 함께 연대해나가고 있다. 이것은 생태주의, 여성주의와 같은 탈근대사상이 원래 노동사목이 지향하고 있던 가톨릭의 생명·평화 사상, 공동체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둘째, 전통적 노동운동은 생산영역 중심의 사고에 근거하면서 가족, 돌봄노동의 영역 등 재생산영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정치경제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면서, 일터 중심의 생산 중심주의, 생산력 중심주의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체제에 들어서자 그간 노동자들의 삶에서 안전망 역할을 해주던 가족이나 이웃공동체가 해체되고 삶터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어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구노동사목은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같이 생산-재생산(일터-삶터) 영역의 의제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구노동사목이 초창기부터 노동자가족 문제, 노동자 거주지역 삶터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왔고 노동탁아소를 운영하면서 돌봄노동 사회화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를 건설한 후에는 사회적 기업, 품앗이 장터, 품앗이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결합하여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이태숙 구술 2013). 여성노조를 통해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과제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대안적인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을 봉사형 NGO와 주창형 NGO의 기능을 결합하여 수행하면서 구조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함께 해결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19)]

셋째, 투쟁 목표에서 공공성을 추구하여 지역사회의 연대를 끌어내고자 애쓴다. 즉, 임금 문제로 싸우더라도 연대를 끌어내기 위한 공동의제 창출과 공공성의 확보를 중시한다.

> "여성노조는 싸움을 할 때, 공공성을 강조하지요. 예를 들어 사립학교 위탁급식 조리업무를 하는 ○○고 여성노조 지회의 경우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떼이면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의 질이 나빠지게 된다는 것을 학부모에게도 최대한 홍보하고 교육청에서 (사용자 측과의) 협상과정에서도 강조하지요. 그래서 2개월 만에 항복 받아내고 이겼어요. 노조가 다른 노동자들이나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면 연대를 끌어낼 수 없고 노조운동도 한계에 빠지겠지요."(김영숙 구술 2013)

이것은 더 나아가서 노동자의 정치의식화와 정치세력화의 방식에서 생활정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의 정치의식화와 정치세력화는 한국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대구노동사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이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라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부분을 비판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활공간에서 현장의 정치, 일상생활의 정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그 촉매 역할을 해야 된

---

19) 이러한 활동은 인도의 워커즈 컬렉티브(Worker's Collective)와 비교할 만하다. 인도의 워커즈 컬렉티브는 방직공장 여성 해고자, 농촌과 도시의 빈곤층 여성들이 자립을 목적으로 모인 다양한 조직으로, 안나뿌나(음식판매사업, 신용협동조합,성매매 여성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상설 판매장, 직업훈련센터 운영), 쎄뚜(가사도우미사업조직, 교육·보육 지원활동과 정책 제안활동), 세와(빈곤층 자영노동자 조직, 비디오협동조합, 은행·퀼트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운영) 등이 있다(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003).

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노조는 경제적 조직이지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철폐를 제도화하기 위해 싸우고, 대구여성노동자회는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획득과 돌봄노동 사회화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돌봄의 사회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이태숙 구술 2013). 그리고 지역으로 들어가 지역주민 속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공동체운동을 전개하면서, 노동자의 시민성 제고를 통한 노동현장의 정치, 생활정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을 사례로 최근 한국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톨릭 노동운동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대구노동사목이 활동했던 28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동 경과나 특징을 한 편의 논문에 다 담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초기 결성과정부터 1990년대까지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2000년대 여성노조 건설 이후의 과정은 몇몇 측면만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주제는 별도의 글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가톨릭 노동운동은 1970년대 왕성했던 지오세의 운동과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가톨릭노동사목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사목은 지오세 출신의 평신도들이나 수도회 소속 수도자, 성직자들이 공단 주변 노동자 주거지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살면서 시작되었는데, 가톨릭 노동청년의 자주적 조직의 성격을 가진 지오세와는 달리 사업장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밖 지역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의 문제와 노동조합 운동을 지원하는 지원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대구노동사목은 1985년 제도교회 밖에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교육, 상담, 조직활동을 하고 노동탁아를 하면서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낮은 곳 중의 낮은 곳을 찾아간다'는 기치하에 작은 공장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와 대구여성노동자회를 결성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발견 교육'과 같이 노동자의 영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중시하며, 노조 활동에서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고 투쟁 목표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가톨릭의 생명·평화 사상과 공동체주의 사상을 신사회운동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사상과 결합시키면서, 지역사회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돌봄노동의 사회화' 문제와 같이 일터(생산)영역의 의제와 삶터(재생산)영역의 의제를 함께 연결하여 해결하려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대구노동사목의 활동은 과거에 정치적 노동운동이나 전투주의 노동운동이 주류를 이뤘을 땐 경제주의적인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고 정치적 노동운동단체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신자유주의체제하에 노동운동의 조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대구노동사목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탈근대적 노동운동과 대안적 조직을 추구하는 대구노동사목의 활동방식을 통해 기존 노동운동에 대한 대안적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2002.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연혁 현황 그리고 이념.”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강승구·김상숙 편. 2005. 『故 이성경 유물자료집』.

강승구·김상숙·임채도·임순광 편. 2005. 『노동사목자료』.

고 최태욱 노동열사 분신대책위원회. 1990. 『고 최태욱 노동열사 추모자료집』.

김영숙. 2011. “언제나 그리스도 왕께 충실을 다짐하면서. 불모의 땅 대구에 대구노동사목 나눔의 집을 만들다.” 대구노동사목.

대구노동사목. 2002. “대구노동사목 나눔의 집이 걸어 온 길.” 대구노동사목.

〈단행본〉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2004a. 『가톨릭 노동사목 20년』.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_____. 2004b. 『한국가톨릭노동사목헌장 노동자의 벗이신 그리스도』.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대형과제연구단. 2006. 『근현대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 대구·경북의 지성과 운동 자료집 13권. 영한.

김상숙. 2007. 『지역과 젠더통제. 여성노동자들의 저항: 80년대 대구지역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청년회 50주년기념추진위원회. 2011. 『대구JOC 50년사』. 대구가톨릭청년회 50주년기념추진위원회.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방혜신. 1993.『1970년대 여성 노동운동에서 여성 특수과제의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손영주·신경아. 2009.『그대와의 해오름: 한국여성노동자회 20년사』. 한국여성노동자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옥지·강인순. 2001.『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한울아카데미.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2011.『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10년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접힌 날개를 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순옥. 2004.『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정미숙. 1993.『70년대 여성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경험 세계적 연구—섬유업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최장집. 1988.『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1977.『가톨릭노동청년운동의 지침』.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_____. 1986.『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25년사』. 분도출판사.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발행연도 미상(1966년 자료 재발행).『가노청 일반지침: 생활 속의 사도직』.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50년의 기록 출판위원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50년의 기록』.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50년의 기록 출판위원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8.『대구·울산 지역실태와 노동운동』. 민중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003.『빈곤여성의 자립과 자활공동체 모델 모색을 위한 인도·일본 연수보고 워크샵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황상근. 1989.『벽돌 없는 학교 가톨릭 노동청년회』. 성바오로출판사.

Kim, Seung-kyung. 1997. *Class Struggle or Family Struggle?: The Lives of Women*

Factory Workers in South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김 원. 2004a. “1970년대 민주노조와 교회 단체: 도시산업선교회와 지오세 담론의 형성과 모순.”『산업노동연구』 제10권 제1호.

_____. 2004b. “1970년대 여공의 문화: 민주노조 사업장의 기숙사와 소모임 문화를 중심으로.”『페미니즘연구』 4권. 도서출판 동녘.

_____. 2005. “1970년대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노동운동.”『1970년대 민중운동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광희·박경애. 2004. “대구·경북지역 섬유업체들의 협력관계에 관한 실태조사.”『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1집. 한국의류산업학회.

서중석. 2012. “광주항쟁과 천주교회의 진실 알리기.” 5·18 민주화운동 32주년 학술대회(천주교-역사적·철학적 관점) 발표논문.

신광영·김현희. 1996. “여성과 노동운동: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중심으로.” 1996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온만금. 2000. “역대 선거결과에 나타난 지역성과 지역문화.”『사회연구』 창간호. 광주사회조사연구소.

이광일. 2001. “민주화이행. 80년대 ‘급진노동운동’의 위상 그리고 헤게모니.” 진보평론 9호.

이윤갑. 2004. “근현대 영남지역의 민족운동과 지역사회의 변동.”『황해문화』 44호. 새얼문화재단.

조옥라. 1994. “가부장적 기업구조와 여성 노동운동.”『사회과학연구』 3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통계·신문·정기간행물·기타 자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0/09/16. “평신도와 사제 수도자들이 평등하게 동반하는 공동체, 가톨릭노동사목.”
_____. 2011/07/17. “최태욱 다태오 노동열사 21주기 추모미사.”
_____. 2011/12/08. “대구에서 25년, 노동 ‘사목’ 지켜온 평신도.”
_____. 2012/07/03. “흔들리지 않는 대구, 변할 수 있을까?”
경제기획원. 1987.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연합뉴스』, 2013/07/25. “시국선언하는 부산 천주교 사제 121명.”
전국여성노동조합 홈페이지(http://blog.daum.net/kwunion99).
통계청. 1987.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DB』.
『한겨레신문』, 2013/08/14. “보수 성향 대구 사제들 100여명 첫 시국선언.”
_____, 2013/08/26. “천주교 수도자 4502명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구술 자료〉

구술자	출생	구술 시기 및 장소	주요 경력
김영숙	1957년 경북	2004/02, 2013/09 대구노동사목 사무실 (대구 소재)	1976년부터 지오세 활동을 시작하여 1981년에 지오세 전국여자회장을 맡았다. 1985년에 대구노동사목을 결성하여 지금까지 상근해왔다. 초대 대표를 맡았으며, 이후 이태숙과 교대로 대표직을 맡아왔고 대구노동조합연합 교육위원,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부의장,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등을 맡았다. 현재 대구노동사목 대표이다.
이태숙	1955년 서울	2004/02, 2013/09 대구노동사목 사무실 (대구 소재)	포교 성베네딕도 수녀회 수도자였다. 그는 수녀회 휴가 중에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버스 안내양들을 교육하다가 노동사목에 성소가 있

			음을 깨닫고 수녀회에 복귀하지 않고 1985년에 대구노동사목 결성에 합류하여 지금까지 상근해왔다. 김영숙과 교대로 대구노동사목 대표를 맡아왔으며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운영위원을 맡았고, 현재 대구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다. 미술심리치료 전문가이다.
장명숙	1954년 경북	2004/02 장명숙 직장 사무실 (대구 소재)	1972년부터 지오세 활동을 시작하여 1974년 삼호방직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되었다. 1976년에는 대구교구 지오세 회장, 전국지오세 상임위원을 맡으며 지오세에서 상근했다. 1985년에는 구미노동사목에 상근자로 근무했으며, 1990년대에는 진보정당운동을 하면서 1991년 광역선거 시의원에 출마한 바 있고 노동자학교 교장 등을 맡았다.
박순희	1947년 서울	2013/1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무실 (서울 소재)	1967년부터 지오세 활동을 시작하여, 1971년 지오세 남부연합회 회장, 1976년 원풍모방 노조 부지부장, 1983년 전주노동사목 노동자의집 소장, 1990년 전노협 지도위원, 1995년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현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장이자 민주노총 지도위원이다.

투고: 2013.10.7 심사: 2013.10.10 확정: 2013.10.29